

「9장. 결론」

대니얼 펠스, 『종교에 대한 여덟 가지 이론들』 (한국기독교연구소, 2013).

발제 김민아

최근의 이론적 관심

오늘날에는 어느 하나의 이론도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경쟁적인 해석의 패턴들이 존재. 인본주의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인류학적 패턴.

1) 인본주의적 오리엔테이션

종교 활동은 인간 활동으로, 다른 모든 인간 활동에서처럼 근본적으로 생각과 의도와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라고 추정. 종교 행동을 설명할 때, 종교적 믿음들과 의도들과 열망들에 호소하여 설명. 의식적인 종교적 동기들, 즉 주로 예배, 기도, 제의, 믿음 같은 분명한 종교적 행동의 원인이 되는 의식적인 종교적 동기들에 초점. 엘리야데는 종교적인 생각들과 믿음들, 태도들이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간의 다른 활동들을 이해하는 데도 관건이 된다고 봄. 데이비드 카라스코(David Carrasco)가 계승.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는 인본주의적 설명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힌두교와 신화 속에 깊이 새겨진 종교적 동기들, 관념들과 가치들에 호소하지만, 그것들을 탁월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음. 그녀는 엘리야데보다는 베버의 학문적 전통 따름. 종교적인 관념들과 동기들이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예술적, 정치적, 그리고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인과관계의 망을 발견하기 위해 '도구상자' 접근방법 이용. 종교를 설명하거나 종교가 생활의 다른 영역들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념, 가치, 조건, 원인, 환경 등에 관해 자유롭게 취사선택하고 혼합시켜서 제시. 이런 연구 패턴이 오늘날 종교에 대한 모든 설명들을 위한 거의 '기본 설정'(default setting)으로 간주.

2) 심리학적 오리엔테이션

지난 20년 동안 사회심리학자들 대부분은 정신분석학의 방법론에서부터 떠나, 자료수집과 상호관계와 분석 등 '자연과학'(hard science)의 모델로 옮겨갔음. 프로이트에 대한 반대의 경향. 카를 융(Carl Jung)은 종교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 고든 알포트(Gordon Allport)는 보편적으로 심리적 신경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종교경험의 형태가 있다고 추정할 필요 없다고 보았음. 개개인이 다양한 감정과 정서에 이끌려서 삶에 대한 종교적 관점 형성. 에이브라함 마슬로우(Abraham Maslow)는 전 인류에 걸쳐 종교적인 감정들은 개인들이 신비한 형태의 절정 체험에 반응할 때 자연스럽게 개인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봄. 이런 경험들이 동일한 정도까지, 그런 경험들이 고취하는 모든 종교의 목표도 동일함.

1980년대 이후, 종교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이 심리학 연구의 새로운 초점으로 부각. 데이터에 입각한 '자연과학' 연구들에 집중. 이런 연구에서 종교는 정신과 육체의 건강 모두의 협력자임. 『용서: 이론과 연구와 실천』(*Forgiveness: Theory, Research an Practice*, 2000)에서는, 종교를 화해의 실행자로 보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원천이 된다고 보는 주제 다룸.

이들에게 종교는 정신분석만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 정신분석이 제공할 수 없는 치료법 가운데 하나임.

3) 사회학적인 오리엔테이션

베버보다는 뒤르켐에게 의존. 밀톤 잉거(Milton Yinger)는 뒤르켐처럼 종교를 기능적으로 정의하면서, 종교가 공동선을 위해 개인의 사적인 열망을 통제한다고 주장. 종교가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완전히 사회생활 양상에 통합되어 있다는 뒤르켐의 주장에 강력히 찬성. 브라이언 윌슨(Bryan Wilson)과 스티븐 브루스(Steven Bruce)는 현대의 세속화가 종교의 최후 소멸을 초래할 과정이라고 봄. 현대화가 진행되면, 종교가 차지할 공간이 더욱 작아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뒤르켐의 강조점들과 베버의 주장들을 통합시킴. 사회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하여 이것을 외부로 투사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은 자신 밖에서와 사회에서 진실로서 객관화되고, 결국은 다시 내면화하여 미래의 행동과 믿음의 프로그램이 됨. 현대화는 이런 연결성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적 믿음의 체계로서의 종교는 그 힘을 상실.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은 세속화 논제에 동의하지 않고, 종교의 적응하며 살아남는 힘 주장. 피터 버거는 1999년 이후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세속화 논제에 대한 자신의 비판 제시.

4) 정치경제적 오리엔테이션

‘탈식민주의 이론’(postcolonial theory). 현대 서양의 부유한 제국주의적 문화들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의심의 프로그램을 뜻하는 용어. 이들 학자들은 지난 500년간 서양의 산업세계의 부유한 계급들이 자기들의 나라와 세계 각처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살아왔다고 주장.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는 문화통제의 공범자, 즉 가난한 대중과 힘없는 소수민족에게서 특권적 엘리트들에게 막대한 부를 이전하기 위한 조직적 문화통제의 프로그램에 기꺼이 공범자가 되어왔다고 주장. 허버트 마르크제(Herbert Marcuse), 테오도르 아도르노(Theodore Adorno),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자크 라캉(Jacques Lacan),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The Wretched of the Earth*, 1961)은 탈식민주의 운동의 성경이며 교리문답집. 리처드 킹(Richard King)은 베버가 아시아와 서양종교를 비교하면서 두드러지게 강조했던 ‘신비주의’라는 범주는 유럽 학자들이 서양 우월주의의 입장에서 인도 종교에 덧씌운 왜곡이라고 주장. 탈랄 아사드(Talal Asad)는 종교라는 개념이 서양 중심의 협소한 개념이며, 무슬림의 동양에 덧씌운 개념이라고 주장. 미셸 푸코는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기관들, 언어, 문화, 종교, 과학까지 조종하는 장치들을 끊임없이 공격적으로 폭로. 권력과 특권에 뿌리박고 있는 사회적 불균형을 서양 사회 속에서도 발견했다고 주장. 지배집단이 권력의 한 형태인 지식을 통제함으로써, 정신병자, 죄수, 여성, 동성애자들처럼 힘없는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했음을 폭로.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은 서양에 대한 관습적 비판에 아시아인과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덧붙여, 여성은 물론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까지 권력에 저항하는 세력 속으로 뭉치게 함. 메리 데일리(Mary Daly)는 그리스도교 안의 가부장적 지배에 대해 강한 불만 토로. 마샤 아일린 히윗(Marsha Aileen Hewitt)은 서양문화를 넘어서 세계종교들 전체에 대해 비판.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비엔나의 자유시장 경제학파에 속하는 마르크스

의 큰 적수들의 비판적 연구에서 생겨남.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택한 합리적 선택의 원칙의 관점 통해 경제행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음.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와 필립 베인브릿지(Philip Bainbridge)는 하느님이나 내세를 믿는 결단은, 비용과 편익(cost-benefit) 계산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5) 인류학적 오리엔테이션

‘오래된 빅토리아 시대의 인류학’과 ‘새로운 현지조사 인류학’이 두 종류의 인류학. 현지조사 없이 안락의자에 앉아 연구하는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과, 인류가 야만시대에서 문명시대로 자동적으로 진화한다고 순진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빅토리아 시대 인류학 비판.

현대 인류학의 두 가지 주된 영향은 첫째, 현지조사와 둘째, 뒤르켐이 착수한 본래의 사회학 설명의 원칙. 뒤르켐의 핵심주장은 종교적 관념들과 제의들이 그 밑에 놓여 있는 사회적인 실재를 반영하는 이미지들이라는 것. 사회구조와 속박이 개인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믿음과 가치관, 습관과 예식, 모든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생각의 범주들까지도 그 틀을 잡아준다. 래드클리프-브라운의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는 사회의 고정된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사회의 정돈된 기능에 기여하는가를 입증하려는 것. 신화들에 대해 구조적 설명 제시.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원시사회에서 그들이 발전시킨 정교한 분류체계를 검토하여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강조. 사회적 격자들은 질서의 필요성에 응하는 공간과 경계선 제공. 에드먼드 리취(Edmund Leach)는 어떻게 분류법이 사회 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에 쓰이는가를 설명.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어떻게 제의들이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줌.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는 부족민들의 신화들과 관습들에 구조언어학을 적용하여, 말이나 생각 혹은 물체들 사이의 관계가 그것의 개별적 의미나 정체성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 부족들의 신화에 등장하는 종교적 언어에서 핵심적인 특색은 흔히 그 이야기의 내용이나 인물이 아니고, 중요한 물체들이나 용어들 혹은 인물들 사이의 관계임.

1990년대 새로운 전환. 진화생물학과 인지과학의 이론적 모델들에 대한 관심 높아짐. 에드워드 윌슨(E. O. Wilson)은 인간의 육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정신활동과 행동 패턴들의 근원 추적. 생존을 위해 자연에 의해 선택된 해부학과 생리학의 특성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 알림. 토마스 로슨(E. Thomas Lawson)과 로버트 맥컬리(Robert N. McCauley)는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를 종교이론과 통합시키려 노력. 파스칼 보이어(Pascal Boyer)은 진화생물학에 의존하여, 종교적 믿음이란 두뇌 속에서 일반적인 생존 욕구를 위해 의식으로 자연히 진화된 구조로부터 생기는 일종의 개념적 추후 생각(conceptual afterthought)이라고 주장. 이 연구들의 공통적 패턴은, 유전에 근거한 정신구조와 인간의 기질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적 여과과정을 통해 인간의 현재 육체 구조 속으로 다듬어진 것으로, 인간의 행동과 믿음을 해석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임.

마지막 과제: 이론들의 비교와 평가

1) 이론과 정의(그 이론은 종교라는 주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적어도 처음에는 모두가 종교를 영적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연결되는 믿음들과 실천들 속에서 찾는 경향 있음. 종교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여덟 명의 이론가들 모두가, 공통적인 기

반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음.

2) 이론의 유형들(어떤 유형의 이론인가?)

종교의 기원을 역사적 관점에서 탐구: 막스 뮐러, 타일러, 프레이저, (뒤르켐). 한때 유행하던 사회적 진화론은 모든 면에서 거부당함. 20세기 이론은 영구적인 심리적 필요성 혹은 사회적 상황에서 그 기우너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기능주의적이며 환원주의적 설명: 프로이트, 뒤르켐, 마르크스

반환원주의적 입장: 베버, 엘리아데, 에반스-프리차드, 기어츠. 20세기 거치면서 점차 강해짐. 로빈 호튼(Robin Horton)이 타일러의 주지주의 이론 회복시킴. 우리가 외부인으로서 신들이나 영들에 대한 부족사회의 믿음을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조리 있는 과학적 설명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것. 환원주의와 반환원주의 이론 간의 논쟁과, 비합리주의와 주지주의 간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됨.

3) 이론들의 범위(그 이론의 범위는 어떠한가?)

종교가 처음 나타나서 인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한 전체 역사 설명: 타일러, 프레이저
환원을 통해 모든 종교를 설명하려는 시도: 프로이트, 뒤르켐, 마르크스

환원주의에 반대하며, 종교를 다소 포괄적이며 비교적인 방식으로 설명: 베버, 엘리아데
모든 종교에 대한 설명에 의심: 에반스-프리차드, 기어츠

4) 이론들과 증거(그 이론은 어떤 증거에 호소하는가?)

전 지구적 증거의 나열: 타일러, 프레이저, 베버, 엘리아데. 언어의 장애와 번역의 한계, 증거보다는 오히려 추리로 채워지는 공백이 있음.

한 증거로 어느 곳에서나 종교를 발생시키는 인간 내의 근본적 심리과정 발견: 프로이트, 마르크스

이론과 증거의 문제에 대한 어떤 형태의 타협: 뒤르켐, 에반스-프리차드, 기어츠

5) 이론들과 개인의 믿음(이론가 개인의 믿음 [혹은 불신]과 그가 개진하려고 선택한 설명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종교적 믿음과 종교 설명의 공존 가능: 막스 뮐러

종교에 대한 설명이 종교적 믿음에 도전한다는 관점: 타일러, 프레이저

종교 거부: 프로이트, 마르크스, 뒤르켐

종교적 믿음에 대한 공감: 엘리아데, 에반스-프리차드

종교적 음치(religiously unmusical)와 불가지론(agnostic): 베버, 기어츠

과거와 현재의 이론들

인류학은, 종교에 대한 어떤 일반이론, 즉 일차적으로 인본주의적 법칙들이나 사회과학의 법칙들에 호소하는 일반이론이 여전히 과학이라는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제기. 장래의 가능성은 모든 종교를 설명하려는 일반이론에 있지 않음. 미래에 가장 유용한 종류의 이론은 하나의 특수한 종교에서 끌어낸 것으로서 모두에게는 아니겠지만 상당

수의 다른 종교들에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사고와 연관성, 특별한 경우를 위한 좁게 만든 원칙들의 형태로 나타날 것.

이처럼 집중적인 특수연구들을 강조한다고 해서, 종교현상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진술을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님. 연관성을 찾아보고 유사성을 찾거나 서로 비교할 틀을 만드는 것은 유용하지만, 이것은 과학의 절차라기보다는 인문학 연구와 관련된 연구형태이며 습관. 종교에 관한 미래의 이론적인 탐구는 사회과학의 일반화 목표보다는 인문학의 특수성과 역사적인 초점에 맞추어 진행할 필요 있음. 인본주의적 탐구가 매우 다양하고 변화되는 자료의 성격에 더 적합함.